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선언문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나이와 상관없이 방송,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지식 없이는 교육, 건강, 노동, 여가 등 모든 측면에서 현대 사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미디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즐기는 주체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졌고, 그 어떠한 물리적 경계도 없이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 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1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데이’에 참가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런 미디어 환경을 원해요

1. 미디어는 우리가 학교 숙제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미래 진로를 탐색할 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와 그에 담긴 정보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미디어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가끔은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 어떤 게 우리 나이에 적절한 정보인지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허위정보도 많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된 자료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 등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법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성인과 어린이·청소년이 물리적인 구분 없이 같은 온라인 공간을 공유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연령대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추천 받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나 광고가 자주 노출되고, 어린이 청소년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용어가 널리 쓰이기도 해서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화면 뒤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미디어 안과 밖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이, 성별, 국적, 지역, 장애 여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4. 복잡한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미디어에서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용자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모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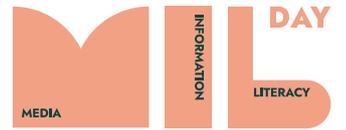
우리는 약속합니다

1.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미디어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와 가정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2.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익명성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일삼는 문화입니다. 그러한 문화를 끊어내고 그 누구도 나이, 성별, 지역, 국적, 장애 여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욕설 및 혐오표현 사용,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허위정보 공유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우리는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미디어에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맞춤형 광고 노출과 해킹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의 개인정보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잘 존중받고 보호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같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노력합니다.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약속해주세요.

1. 모든 어린이 청소년이 미디어에 잘 접근할 수 있게 살펴봐 주세요.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친구,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모르는 친구가 없도록 보편적으로 미디어와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2. 미디어·정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앞으로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해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잘 선택해 이용하는 것은 매우 다른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가장 오래 살아갈 우리가 어떠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디어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디어를 만들어 주세요. ‘오린이’나 ‘잼민이’ 같은 어린이·청소년을 비하 및 혐오하는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성인을 위한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등 미디어 활용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세요.
4.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영상, 기사, 사전 등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청소년용 콘텐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세요요.

5.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우리 얼굴이 나온 사진을 동의없이 SNS에 올리지 말고, 우리 계정을 어른들이 함부로 들여다본다거나, 미디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개인정보가 위험한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요.